



## 미국, 자동차보험료 인종차별 논란

정인영 연구원

최근 미국에서는 소수계 인종 밀집지역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백인 밀집지역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보다 평균 10%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인종차별 논란이 제기됨. 이에 대해 보험정보원과 주(州) 보험감독청은 해당 조사기관이 사용한 데이터와 방법론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보험 회사들이 공정한 요율산정체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함. 미국에서는 인종과 소득에 따른 보험료 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ProPublica와 Consumer Report는 미국 일부 주의 보험회사가 소수계 인종<sup>1)</sup>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백인 밀집지역의 가입자보다 평균 10% 이상 보험료를 높게 부과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sup>2)</sup>

-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주(州)를 우편번호 기준으로 구획하고, 각 지역의 평균손해액(loss cost)<sup>3)</sup> 대비 각 지역 내 가상 인물에게 부과되는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함.
  - 지역 이외의 요인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신용도와 운전기록이 양호하며, 학사학위를 보유한 30세 여교사를 가상 인물로 설정함.
- 그 결과, 일부 주에서는 보험회사의 절반 이상이 소수계 밀집지역 거주자에게 백인 밀집지역 거주자보다 더 높은 자동차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sup>4)</sup>

1)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에서는 백인이 아닌 거주자가 66% 이상인 곳, 미주리주와 일리노이주에서는 백인이 아닌 거주자가 50% 이상인 곳을 소수계(minority) 인종 밀집지역으로 정의함.  
 2) ProPublica(2017. 4. 5), "Minority Neighborhoods Pay Higher Car Insurance Premiums Than White Areas With the Same Risk"; New York Times(2017. 4. 5), "Study Finds Car Insurers Raise Rates in Minority Neighborhoods".  
 3)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텍사스, 미주리 등 4개 주(州)의 보험감독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고율과 지역별 평균사고금액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손해액을 산출함.  
 4) 일리노이주는 34개 보험회사 중 33개사, 미주리주는 25개사 중 21개사, 텍사스주는 18개사 중 9개사, 캘리포니아주는 21개사 중 8개사가 소수계 밀집지역 거주자에게 평균 10% 이상 보험료를 더 많이 부과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Allstate, Liberty Mutual 등의 보험회사는 소수계 밀집지역의 보험 가입자에게 해당지역과 유사한 손해비용이 발생한 백인 밀집지

■ 발표 이후 소비자단체 및 주요 언론은 보험회사들의 불공정한 자동차보험료 산정 방식으로 인해 인종이나 소득에 따른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함.<sup>5)</sup>

- 그 동안 보험업계에서 지역별 보험료 차이는 사고위험에 비례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연구에서 지역 간 보험료 격차가 사고위험률 차이로 설명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존재하며 그 요인은 지역별 인종과 소득 분포 차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짐.
  - 대다수 주에는 부당한 요율 차별(unfair discrimination in rating) 금지법이 존재하여, 보험회사는 적정하고 공정하게 보험료를 산정해야 하며, 요율 차등은 예상손실과 비용에 기초해야 함.

〈표 1〉 미국 주요 주의 자동차보험 요율산정요인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텍사스	미주리
사고기록, 운행거리, 차종, 사용목적, 학력, 성별, 결혼상태, 흡연 등	사고기록, 운행거리, 연령, 성별, 직업 등	성별, 결혼상태, 연령, 신용도, 보장범위, 차량, 사용목적, 사고기록 등	보장범위, 공제액, 운행거리, 차종, 연령, 성별, 신용도, 사고기록 등

주: 캘리포니아주는 인종, 종교, 국적, 연령 등을, 일리노이주는 신체장애, 인종, 종교 등에 의한 차별을 요율산정 시 금지시키고 있음.  
자료: 각 주(州) 보험감독청.

■ 이에 대해 미국보험정보원(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과 주(州) 보험감독청은 조사기관이 사용한 데이터와 방법론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보험회사들이 공정한 요율산정체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함.<sup>6)</sup>

- 보험회사는 인종이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해당 정보를 기초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함.<sup>7)</sup>
- 또한 개별회사에서 개인에게 부과하는 보험료를 바탕으로 그 지역 내 모든 운전자의 평균보험료를 추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비판함.

■ 미국의 경우 요율산정 시 신용등급 사용의 적절성, 가격최적화 기법<sup>8)</sup> 적용 제한 등 인종과 소득에 따른 보험료 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kiri**

역 가입자보다 30% 이상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5) 2015년에도 미국소비자연맹(CFA)이 실시한 보험료 비교조사 결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역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타 지역 대비 70% 정도 높다는 결과가 발표됨. 운전자의 사고이력보다 신용도, 거주지 등의 요인이 요율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발생함(Consumer Union(2015. 7. 30), "The Truth About Car Insurance").
- 6) Insurance Journal(2017. 4. 5), "Why ProPublica Auto Insurance Report Is Inaccurate, Unfair and Irresponsible".
- 7) 미국 대다수 주에서는 사고이력, 운전거리 등이 자동차보험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이 외에도 연령, 성별, 차종, 지역, 신용등급 등을 보험료 산정요인으로 적용함.
- 8) 가격최적화(price optimization)란 손실이나 위험과 관련 없는 요인을 요율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가격비교를 통해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가격탄력성), 계약유지 성향 등을 추정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는 기법을 의미함. 미국의 11개 주(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오크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등)에서는 이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